

정론직필 67년...격동의 역사 헤쳐온 지역민 대변지



군부가 검열한 1980년 6월2일자 옛 전남매일신문 1면(왼쪽)과 실제 발행본. 신문부는 5·18의 아픔을 표현한 김준태 시인의 시 '아이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꽃여' 상당 부분을 지면에 실지 못하게 했다.



1980년 6월2일자 옛 전남일보 1면 '무등산은 알고 있다'.



1980년 12월1일 김종태 전 사장 등이 걸고 있는 광주일보사 현판.



1980년 12월1일 김종태 전 사장 등이 걸고 있는 광주일보사 현판.

광주일보 67년 걸어온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특별한 축사를 했다. 광주일보의 전신이었던 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과 용기를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양심이 담긴 공동 사표가 2만 장의 호의로 뿌려졌습니다"면서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필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적혀 있었습니까"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재와 검열의 시대에 보여준 신문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립된 광주시민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옛 전남일보(1952년 창간)와 옛 전남매일신문(1960년 창간)의 중간 후, 이 두 신문을 통합해 새 출발한 광주일보가 올해로 창사 67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는 광주와 호남 역사의 발자취이자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었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펴다'는 가치로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세월호 침몰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격동의 현대사 속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옛 전남일보 1952년 창간~1970년대=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1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옛 대한통신전남지사 2층 편집실에서 故 김남중 사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사원은 숯불화로 하나가 의지한 채 원고를 쓰고 제목을 붙였다. 타블로이드판 2개 면으로 된 2월11일자 창간호의 1면 머릿기사는 '판문점 협상'을 동경발 UPI통신으로 실었

문대통령, 5·18당시 광주일보 기자들 사표에 '용기있는 행동' 언급
호남예술제·3·1절 마라톤 개최 등 지역인재 육성 산실 자리매김
나주 비료공장 유치·이웃돕기...지역발전·사회공헌 사업 앞장

고, 사실에 해당하는 시론은 '휴전협상의 이면'이란 제목의 이규갑 고문의 글이었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창간호는 2000여 부가 인쇄돼 광주시에 뿌려지고 지방에도 발송됐다.

1958년 5월1일부터는 지방지 최초로 매일 4개면 발행에 들어갔다. 1959년 1월부터는 월 2회 휴간하던 정기휴간제를 폐지하고 연중무휴로 신문을 발행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도 병행했다. 창간 초기 나주 비료공장 유치 운동을 벌이고 호남예술제 창설(1956년), 지역특산물 전시회, 미션전남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마라톤·야구·배드 등 각종 대회를 열었고,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1960년대 초반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했다. 옛 전남일보는 군부대의 부정선거 실상과 투표장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기사를 냈다.

또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4·19 시위를 신속히 보도, 시민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도 자처했다. 1965년 6월3일자 신문은 '청구권 소멸이란 무슨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실로 굴욕적인 대일 외교 협상을 비판했다.

혼란했던 시국과는 달리 사세는 승승장구했다. 1962년 12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금남로 시대'를 열었다. 날로 늘

어나는 부수 확장에 따라 옛 전남일보는 1968년 10월9일 기존의 전남북 2도지(道紙)에서 전국지(全國紙)로 등록했다.

1963년 11월에는 취재전용 비행기 '무등산호'가 도입됐다. 무등산호 도입으로 보도 기능이 한층 강화됐고, 사건 현장의 항공취재는 물론 각종 기획기사 취재에도 입체적으로 활용됐다.

이 보다 앞서 밤시간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충장로의 한 건물 5층 옥상에 전광뉴스판을 설치, 가운데 들어갔다. 월간전이 한창이던 1966년에는 월남전의 생생한 취재를 위해 1개월간 중군기자를 특파하기도 했다.

발전은 거듭한 옛 전남일보는 1969년 7월16일 지방지 최초로 컬러 신문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옛 전남일보는 종합매스컴센터를 구축, 언론 기업으로서 터전을 다졌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창간된 '주간소년'에 이어 1971년 '전일방송국'을 개국, 신문과 라디오로 입체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옛 전남매일신문 1960년 창간~1980년=광주일보의 또다른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故 김일로 사장이, '공평과 중정(中正)의 준중' 지역개발의 참여 '국민민복(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의 도모'를 사시로 내세우며 1960년 9월 26일 창간했다. 김일로 사장이 1966년 타계한 후 부인이 경영을 맡다 1971년 로케트전기 심세 일가에게 매각된다. 이때 지방신문 최초로 매일 8면씩 발행했다.

1968년 2월 15일 전국지로 등록했으며 1969년 6



광주 상공을 날고 있는 광주일보 취재 전용 항공기 '무등산호'.

월 17일부터는 '전북판'을 신설해 전라북도까지 취재·보급망을 확충했다. 1972년부터는 2주에 1회씩 컬러판을 선보였다.

남도문화제(南道文化祭) 관련 기획시리즈 '남도의 빛' '백제의 유산' '그 후예들' 등을 100여 회씩 연재한 뒤 단행본으로 출간했으며 호남의 미술사를 조명하는 '남도화(南道畫)', '남도서예' 등을 80여 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힘썼다.

자매지로는 '포토전매' (PHOTO全매), '전매어린이', '월간전매' (月刊全매) 등이 있었다. 강제 통폐합 되기까지 20년 2개월간 존재했으며 폐간 당시 지령은 5806호다.

◇5·18민중항쟁과 광주일보 창간(1980년대)=광주민주항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후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보도 검열이 진행됐고, 공정 보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일 다시 발행한 신문은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은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원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29일 문을 닫는다. 두 신문은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1일 창간호를 냈다.

같은해 12월1일 전일방송 또한 KBS로 강제통합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광주일보는 6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실규명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88년 2월 4일자 사설에서 광주사태 치우적 마면을 위해 발족한 민주화추진위의 활동에 대해 "광주사태는 보상문제 보다 진실규명이 앞서야 한다. 사건자체의 원인과 실상 등 진실을 담은 채 사건을 매듭지으면 또 다시 역사는 왜곡되고 그 역사는 조명할 필요성을 잃게 되므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광주일보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5월이면 5·18관련 기사를 집중 게재하고 있다.

◇1987년~현재=1987년 발표된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우후속순 생겨났다. 또 언론의 홍수시대와 IMF경제 위기, 신문산업 쇠락 등으로 언론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1996년 6월 인터넷 광주일보(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했다.

1994년 4월에는 전면 가로쓰기로 신문이 제작됐다.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예향'은 지난 1984년 10월 창간됐다. 또 2년(통권 209권) 발간을 멈췄다가 2013년 4월 복간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